



감사패

충북도육상연맹
제21대 회장 신동삼

그동안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강산이 두 번 변할 만큼의 시간, 회장님께서 뿌려오신 땀과 열정, 변함없는 사랑을 디딤돌삼아 충북육상은 반석위에 올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지난 2000년부터 20년 재임하시는 동안 오로지 꿈나무선수발굴과 우수선수육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내실있는 연맹운영에 힘쓰셨습니다.

통일의 염원을 안고 달린 부산-서울간대역전경주대회에서 전국의 내로라하는 건각들을 물리치고 우리 도가 총 20승을 차지하는 금자탑을 세우셨을 뿐 아니라, (5차례우승 이후 2000년 제46회대회~2004년 제50회 대회까지 5연패, 2006년 제52회 대회~2015년 제61회 대회까지 10연패) 전국체육대회 마라톤 부문 종합 우승 7회, 준우승 4회, 종합 3위 6회의 괄목한 만한 성적으로 거두었고, 2019년에는 종합 4위까지 도약함으로써, 10위권 밖이던 충북육상을 전국상위권 반열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또한 연맹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출연으로 충북육상연맹이 전국의 타 시도연맹으로부터 명실상부 모범사례로 뽑혀 왔으며, 각종대회 및 행사시 원고없는 달변의 연설은 충북육상의 자랑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20여 성상을 변함없이 열과 정성을 다하여 충북육상과 함께 달려오신 회장님, 감사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회장님의 고귀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고마움 영원히 잊지 않고자 충북육상인 모두의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0. 6. 4.

충북육상연맹임원 · 충북육상인일동

